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 Existing as architect in this age



**류준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1946년 11월 경북 봉화생  
한양대학교 건축과 졸업(1970년)

### 건축과 입학동기

저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건축과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적성검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었구요, 미대보다도 건축과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경북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학생사생대회에서 1등을 하는 바람에 그런 생각이 굳어진 것이지요, 고등학생 솜씨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학·물리과목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들을 합치면 당연히 건축과에 지원한 거지요.

64년, 65년 2년간은 봉화군에 있는 '축서사'라는 절에서 보냈습니다. 2년 동안 공부도 하고, 사실은 제가 절을 좋아하거든요. 집이 부자였었다면 미국 유학가서 서양건축을 배워 지금과는 다른 취향의 건축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요. 대학 졸업 당시 졸업 작품이 절(寺)이었는데 졸업하자마자 대한불교 조계종 대본산 계획안 현상이 있어 졸업 작품을 그대로 제출했고, 상금을 받았습시다. 전통을 현대화하려는 취향이 이미 당시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통건축이 내게 준 영향

월드컵경기장 당선 후 일본 NHK방송에서 2002년 6월경 '시공을 초월하여'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전통건축과 월드컵경기장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게 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0분짜리였는데 저에게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고, 절간에서도 오랜 기간 묵은 적이 있고 종가집에서 자라난 경험이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건축가들이 전통건축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눈으로 본 것으로, 이성으로 느낀 것을 가지고 말할 때, 때로는 탐탁스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던한 기술적인 건축에 등한한 한 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가장의 역할을 짚어짐

1970년 대학교 졸업하던 해 2월에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영주세무서 공무원인 여동생, 연대주생활과 다니던 여동생, 건국대 상대 다니는 동생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공부를 시켜야할 책무가 지워

진 것입니다. 특히 막내 동생의 공부는 내가 책임질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건축사사무소의 급료가 1만원 혹은 1만 5천원 하던 시절이니 25세의 청년의 삶으로는 정말 팍팍한 것이었습니다.

### 생애 첫 번째 설계경기 당선

주변 친구들이 생활 때문에 은행에 취직하고 그러던 때 나는 제네랄 건축연구소(대표 한창진)에 취직하고 부족한 돈은 투시도를 그려주는 아르바이트로 충족하던 때였습니다. 1970년에 불교미술관 공모전에서 당선하여 당시 돈 5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습시다.

### 처음 설계비로 집을 짓다

당시 조계사 총무스님이 부산 대각사 주지스님이었는데 불교회관 설계를 부탁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비를 60만원 받았고, 당시 휘경동에 살 때인데 당시 집값이 90만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설계비를 받으면 집 한 채 살돈이 되는데 72년도에 봉천동에 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2년 만에 집을 진 것입니다.

### 대연각화재로 죽을 뻔하다

배고픈 시절에 설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투시도 그리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도움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71년 12월 24일, 성탄절날 저녁에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건축(민경재 소장)부탁으로 투시도를 밤새워 그려 주어야 할 형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 저녁이라고 들떠있는데 나만 아르바이트 하려고 생각하니 마음이 울적해 있던 차였습니다. 당시 화금을 다투던 건축주 측에서 하루 이틀 연기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는 다른 직원들이 "놀자" 하는데 나는 김이새서 집에 간다고 나섰습시다. 그러니 다른 직원들도 덩달아 다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에 불이 난 것입니다.

사무소는 도면이고 뭐고 다타버리고 연필심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를 따라 나왔던 직원들이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 제네랄건축과 공간사에서의 경력

제네랄 건축은 71년 말까지 다니다가 종합건축으로

나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 목적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목적이 뒤바뀌다보니, 남의 입에 들어간 일조차  
 뺏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무소들은 건축계에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웁겼고 74년에는 김수근 선생의 공간사로 웁겼습니다.  
 당시 홍순인 소장이 공간의 대표로 있었는데 나를  
 김수근 선생에게 소개해서 74년 9월 9일 입사한 뒤  
 86년 10월까지 12년을 있게된 것입니다. 86년 6월  
 14일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시고 4개월 동안 공릉사옥  
 에 머무르다가 86년 10월 이공이라는 간판으로 개업  
 을 한 것이지요.

제네랄 건축에 있을 때 한 것으로는 부산해양대학  
 현상설계(낙선) 그리고 주택설계가 하나있는데 스케치  
 옆에 한창진 선생이 '장래의 건축가 류춘수에게' 라고  
 메모를 쓰고 수정사항을 조목조목 적어 놓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종합건축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1971~2), 청와대  
 제2산관 그리고 공간사에서는 서울대 환경예술관(1975  
 년), 한계령 휴게소(1979), 이란 알보즈 하우징(1976),  
 부산 야구장(1979), 체조경기장(1983~5), 경북궁 지하  
 철역사(1984) 등 입니다.

특히 체조경기장으로 호주에서 시행하는 쿼터나리오  
 상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당시 은상은 노만 포스터,  
 동상은 호주의 필립 콕스 등이 받은 것이 기억납니다.

#### 김수근 선생 돌아가심

공간사는 84년부터 소장제를 도입하여 각 소장별로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그리고 작품 이름도 소장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하였는데 결국 유능한 사람들을 붙들  
 어두려는 생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독  
 립이 당겨진 것이라고 봅니다. 86년 독립하기 전 공간  
 사에서 눈물의 고별사를 하고 당시 나에게 속했던 팀  
 전원(12명)을 끌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팀원  
 들 중 절반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 이공건축 개업 후의 일들

개업 후 한 일들을 꼽아보면 삼하리 주택(1987년 한  
 국건축가협회 아천상 수상), 강촌휴게소(1989년 한국건  
 축가협회상 수상), 영등포 구민회관, 말레이시아 사라  
 워크 주경기장 기본설계(1988~1989), 릿츠칼튼 호텔  
 (1992), 이공사옥(1992), 김포공항 지하철 역사(1989),

월드컵경기장(1998, 서울시 건축상 금상), 영주 경륜훈  
 련원(1994년) 등입니다. 그리고 해외프로젝트로는 중국  
 해남성 해구시 신부도 도시설계(설계경기 당선, 2006  
 년), XIAMEN올림픽 테니스경기장 및 클럽하우스  
 (2005년), 부산 해운대 트리플스퀘어(117층, 규모 20만  
 평, 2007년) 등이 있습니다.

#### 나의 사무실 운영방식

이공건축은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독립채  
 산제로 해서 1997년부터 각 소장 독립 채산제로 각 소  
 장마다 독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5~6개의 소장이 주도하는 회사체제로 되어있  
 습니다. 이공건축 이름으로 계약하고 합동으로 계약하  
 기도 하고 각 소장별로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장점은 월급을 주는 고통에서 벗어난 셈이지요, 나  
 는 디자인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요즘 100층 이상 되는 기본설계를 맡고 보니 건축  
 주가 회사조직만 보고 능력을 의심하는 세태가 되어서  
 사람 없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  
 싫더군요. 좋은 점은 각자 80% 혹은 70%의 설계비  
 내에서 설계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내 밑으로 이공건축 본부팀을 강화하여 조직  
 을 짜려고 합니다. 20명 정도의 팀을 만드려고 합니다.  
 소장이 6명이고, 한 소장 밑에 5명 있는 팀도 있고  
 12~13명인 팀도 있어 모두 40명 정도 됩니다.

이공공사라는 이름으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하  
 는 회사도 있습니다.

#### 나의 비전

비전은 없어요. 재작년에 환갑을 맞았는데 나이에서  
 20년을 자르고 40세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생각  
 도 바꾸고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중국말도 배우고  
 컴퓨터도 더 열심히 배우기로 했습니다.

큰 애가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양건축  
 에 있습니다. 졸업하고 10년이 되었는데 따지면 30년  
 후배인 셈이지요. 내년엔 건축사시험을 보는데 여쭙거  
 나 장기도 보내고 면허도 따고 그리고 이공에 와서 능  
 력 있는 사람 밑에서 더 커야 되겠지요.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대학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후기

중국에서 당선된 868타워로 국내 신문지면을 채운 기사가 나왔을 때 나는 기본계획만 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말라고 충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류춘수 선생의 답변은 "아니야 디테일까지 다 해야되" 라고 답하면서 인생 최대의 도박을 건 듯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 이후 그 일이 추진이 잘 안되어서 아주 힘들게 되었을 때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월드컵경기장설계이다. 이 경기장 설계 당선으로 그는 유명해졌고 다시 한 번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만큼 공공대형건축의 수주는 한건축가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대답하다. 일례를 들자면 같은 영어실력으로 내가 수준계 영어를 구사한다면 그는 같은 실력으로 담대하게 해외에서 영어로 강의를 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하다. 그의 배짱을 그의 건축에서 한 번 더 볼수 있기를 바란다.

파트너십에 대한 나의 생각

엄밀한 파트너십이라면 동격이 되어야 하는데 동등하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리더로서 젊고 능력 있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인물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싶습니다.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이 되다

2008년 미국건축가협회에서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Hon. FAIA)이 되었습니다. 명예회원 5인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심사가 엄격한데다 매년 5~600명이 신청합니다. 분야는 교육계, 건축계 기여도, 기술, 디자인 부문 등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나의 건축인생에 대한 신조

제가 늘 살아가는데 신조로 삼는 말이 있다면 수시 중처(隨時中處)라고 하는 말이있습니다. 뜻을 풀면, 주어진 환경에 딱 맞는 작업을 한다는 뜻으로 풀고 있습니다. 만약 뉴욕에 고층 건축을 설계한다면 뉴욕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868타워(1992)라고 중국민원공사(해남소재)에서 발주한 일인데, 한·중수교가 이뤄지던 해 12월 국제지명설계경기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13만평에 86층 그리고 68층으로 오피스, 호텔 및 상업시설 등이 혼재한 복합건축으로 하나는 바위산의 형상을 모디파이(modify)하고 하나는 하이테크한 건축의 조합으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조합한 것입니다.

하나는 축석루 같은 모양으로 즉 음양의 조화를 꾀하려는 목적이 가미된 계획이 당선되고 DD(Design Development)단계에서 오너가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그가 중국CDMA(이동통신기기) 국제입찰에서 일등을 해서 바야흐로 중국최대갑부가 되려는 순간 이등 회사가 된 총리의 동생회사에서 그에게 죄목을 걸어 감옥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5년 내에 회사는 거덜나버렸지요.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에 대한 자문을 하다

1984년 올림픽체조경기장 설계를 미국 가이거박사와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의 제자가 펜싱경기장설계에 참여하였습니다. 구조관계를 내가 잘 이해하니 1986년 김수근 선생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내가 독립직전에 북경에서 1990년 아시안게임 하게 될 때였습니다. 올림픽 치르기 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가이거박사 제자가 중국아시안게임 당국자에게 자문 받으려면 한국의 류춘수를 불러라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나는 41세였는데 당시 중국정부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정부와는 수교도 안 된 상태이고, 기타 등등해서 그런 차제에 칭화대학교 교수인 평교수가 강력 추천해서 1988년 한국올림픽 직전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9월에 출국하여 한 달여를 중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두산도 가보고 했지요. 한 달 있으면서 스포츠시설의 방향 등에 대해 강의해 주고 완공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말해주었지요. 특별대우 받았습니다. 1990년 말 스포츠건축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당시 내가 주장한 것은 올림픽 행사 후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북경올림픽 행사 후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쓴 행사 후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상암동월드컵경기장은 한 달에 20억 매출에 연 10억씩 이익이 난다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 수입 중 제일 많다는 겁니다.

현재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나의생각

나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 목적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목적이 뒤바뀐다면, 남의 입에 들어간 일조차 뺏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무소들은 건축계에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